

<초공본풀이>의 초월공간과 중심공간

신연우*

<차례>

- I. 머리말
- II. 수평공간과 수직공간의 양상
- III. 중심 공간의 기능
- IV. 초월과 중심의 차이
- V. 맺음말

국문요약

<초공본풀이>에 나타나는 수평-수직 공간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대립이 확연히 드러난다. 임진국대감집, 서강땅, 서울로 정리되는 가로축은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들이다. 기자치성을 드려 딸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사회 어느 곳에서든 늘 일어나는 일을 되풀이한다. 서울은 세속적인 견지에서 성공을 집약하는 공간이다. 서강땅에서 아기씨가 하는 일은 삼형제를 낳고 힘들여 키우는 것이다. 이 세 공간은 현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태어나서 자라고 과거에 합격하여 출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과정이고 목표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것으로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황금산, 서강땅, 삼천천제석궁의 세로축이 보여준다. 일상적 삶은 죽음에 의해 파탄에 이른다. 삶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죽음이 이를 막는다. 어떤 성공적인 삶도 죽음 앞에서 무의미할 뿐이다. 또 일상을 너머선 곳에 있는 무엇인가를 그리워하게 된다. 노가단풍 아기씨도 삼맹두도 저 높은 곳 황금산에를 다녀와야 한다. 결

* 서울산업대학교

국 가로축에 있는 현실 차원의 일상적 삶이 부딪치는 두 상황을 요약하면 죽음과 초월이다.

이는 <초공본풀이>가 삶의 딜레마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삶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딜레마, 삶은 먹고 사는 현실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는 딜레마. 이 두 가지 딜레마는 인간이기에 겪게 되는 삶의 모순이다. <초공본풀이>는 이 딜레마를 다루는 수많은 신화 또는 종교와 맥을 같이 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초공본풀이>의 방법은 무엇인가? 노가단풍 아가씨는 황금산에 오르기 위해 그 먼 길을 힘겹게 갔고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인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 이런 고통은 왜 필요한가? 그것은 그 길이 중심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중심은 성스러운 곳이다. 초월을 얻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많은 신화의 공통 화제이다.

이것을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중심이 된다. 중심은 흔히 사원이나 신전, 성지 등 만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한 곳은 초월적인 하늘과 자기가 속한 땅과 지하세계를 잇는 곳으로 생각되기에 중심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나 엘리야데가 지적했듯이 중심은 수없이 많을 수 있으며 수없이 만들 수도 있다. 이 서사시 끝에 삼땡두가 굿당을 만든 것도 중심의 창건일 것이고, 당클을 매고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의례를 거행하는 곳이 모두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자기 안에서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중심이 된다. 자기 안에서 초월을 수용하고 고난을 수용하고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땅에 매인 인간을 벗어나 진정한 초월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원이고 신전인 것이다.

한편의 짜임새 있는 신화로서 <초공본풀이>는 삶의 모범이 되는 양식(mode)을 제시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인물들의 삶의 역정이 곧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일정한 규범을 제시해준다.

주제어 : <초공본풀이>, 초월공간, 중심공간, 고통, 삶의 모범

1. 머리말

〈초공본풀이〉를 서사문학의 하나로 이해할 때, 결핍과 그 해결이라는 큰 맥락을 상정해볼 수 있다. 부유한 집에 태어난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기씨가 처음 겪는 결핍은 15세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천하벼슬 지하 벼슬 살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되어, 혼자 남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부모님이 없다는 결핍 상황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 입사담¹⁾ 또는 혼인을 앞둔 아가씨에게 혼인이라는 과제가 주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²⁾ 아기씨는 결국 주접선성과 인연을 맺게 되고 주접선성을 찾아 황금산으로 긴 여행을 하여 그를 만나 아내로 인정받는다.

아기씨의 결핍이 혼인을 위한 것이라면 혼인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혼인에서 끝나지 않는다. 주접선성을 만난 후 홀로 떨어져 나와 삼형제를 낳고 기르고 죽고 재생한다. 혼인이 자신의 반쪽, 자신에게 대립된 것을 찾아내어 결합함으로써 대립의 합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아기씨의 혼인은 아기씨의 삶의 완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기씨의 삶의 종착점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일까? 아기씨의 삶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기에 이 신화는 그토록 오래 되풀이되어 구송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까지 파고 들어오는 그 의미의 보편성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하여 초공본풀이의 인물과 그 활동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의 짜임새 있는 신화로서 〈초공본풀이〉는 삶의 모

1)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연구」, 『한국무속학』 제19집, 한국무속학회, 2009, 7-33쪽.

2)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공간구조」, 『탐라문화』 3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5-33쪽.

범이 되는 양식(mode)을 제시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인물들의 삶의 역정이 곧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일정한 규범을 제시해준다는 것이다.

<초공본풀이>에는 초월적 존재인 주접선성이 거하는 황금산이라고 하는 일종의 초월적 공간과 죽은 노가단풍 자지명왕 아기씨가 죽은 후에 있게 되는 삼천천제석궁이 나타나고, 불도땅 또는 서강베포땅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이 제시되고 있다. 이 공간이 물리적 또는 현실적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신화적 공간이다. 신화적 공간을 통해서 인간적 현실의 삶과의 접점을 찾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아기씨와 삼맹두에게 이 공간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또한 이 본풀이를 구송하는 심방과 청취하는 참여자들이 부여하는 의미일 터이다. 그 의미의 실상을 고찰하는 작업은 이 본풀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열어줄 것이다.

권태효는 장덕순, 조희웅, 서대석, 김열규가 지적한 설화 공간을 검토하고, 여러 편의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이계 여행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수굿 계열의 거리에서는 수직적 공간이동여행이 보이고 진오귀굿 계열에서는 수평적 공간이동여행이 보인다고 정리하였다.³⁾ 그는 <제석본풀이>의 여행자를 삼형제로 보아 수직적 공간이동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초공본풀이>의 경우 삼형제의 여행 뿐 아니라 노가단풍 아기씨의 여행도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크게 보면 삼맹두의 신격화가 주된 목표이지만 서사문학으로서의 <초공본풀이>는 아기씨의 행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갖는다. 이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수직수평의 공간 구성을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기로 한다.

3) 권태효,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계여행의 양상과 의미」,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273쪽.

II. 수평공간과 수직공간의 양상

<초공본풀이>에 보이는 인물과 그 활동 공간을 정리해보자. 먼저 황금산 주접선성이 있다. 황금산이 주거 공간이며 아기씨가 사는 마을에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잠긴 문을 열고 성적인 교합 없이 아기씨를 임신하게 하는 등 도술을 마음대로 부리는 초월적인 존재이다. 초월적인 공간에 사는 초월적인 인물이라 인물과 활동공간이 일치한다.

아기씨는 다 자랄 때까지 집에만 있다가 주접선성을 만나 임신하게 되고 결국 험하고 먼 길을 돌아 황금산으로 올라간다. 황금산에서 주접선성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서 서강베포땅으로 내려와 아들 삼형제를 낳고 고생하며 산다. 아들들이 과거보러 간 사이 모함에 빠져 죽게 되고, 무당이 된 아들들이 굿을 해 살려내어 이승을 관장하는 신으로 좌정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집(인간)-황금산-서강땅-죽음과 재생(신)”이다. 시작은 인간이고 끝은 신이다. 활동 공간도 처음과 끝은 일치하지 않는다.

삼맹두는 서강베포땅에서 출생하여 공부하고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실패 또는 성공하고 서강땅으로 돌아온다. 와보니 어머니가 죽어 있어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외갓집을 거쳐 황금산으로 아버지를 찾아간다. 황금산에서 굿법을 얻어서 다시 서강땅으로 내려와 굿을 하여 어머니를 재생시킨다. 정리하면 서강땅에서 서울을 거쳐 황금산에 갔다가 다시 서강땅으로 돌아왔고 저승삼시왕에 올라 신이 된다. 인물은 인간으로 출발해 신이 되었고, 공간은 서강땅에서 시작해 저승 또는 저승이 있는 하늘에서 이야기를 마친다.

유정승 따님애기는 서강땅에서 자라나 육간제비를 얻어 놀다가 안맹과 회복을 반복한다. 급기야 미쳤다가 죽어 다시 살아나 무당이 된다.

같은 공간에서만 활동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무당으로 귀결된다.

노가단풍 아기씨의 집, 서울, 서강땅은 수평공간이다. 아기씨의 집에서 자식이 없는 아기씨의 부모는 아기 낳기를 기원한다. 아기씨의 집은 단군신화 이래 이 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생활공간이다. 서울은 삼맹두가 과거시험을 치러 가는 곳이다.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세속적인 성공이 보장된다. 세속적인 성공을 대표해 등장한 것이 과거시험이고 세속적인 생활공간을 대표하는 것이 서울이다. 서강땅은 황금산에 올라 갔던 아기씨가 다시 내려와 삼형제를 낳고 생활하는 생활공간이다. 아버지 없이 아이들을 키워야 해서 가난 속에 고생을 겪는다. 급기야 그곳에서 죽었다가 신으로 재생한다.

수직공간의 대표는 황금산이다. 황금산은 높고도 먼 곳에 있다. 아기씨는 황금산을 찾아가기 위해 마른 억새에 불이 붙은 들, 물이 거꾸로 흐르는 동산, 청일산, 흑수 바다, 웨진 땅, 백일산, 건지산, 수삼천리 낙수바다와 불도물을 건너서야 황금산에 이른다. 황금산은 인간의 일상생활 저 높은 곳에 있는 초월공간이고 주접선성은 도력이 무쌍한 초월적 존재이다. 황금산의 신령인 주접선성은 임진국대감부부에게 아기를 접지해주고, 아기씨가 임신하여 삼형제를 낳게 하고, 임신한 아기씨를 위해 연다래를 따러 간 느진덕정하님에게 바람을 일으켜 열매를 따게 하고, 아기씨가 낙수와당 큰 물 앞에서 울다 잠이 들자 안내자를 보내 물을 건네주고, 삼형제가 과거보러 가는 길에 돕기도 하고 죽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굶게 돕기도 한다.

황금산과 직접 이어지는 삶의 공간은 서강배포땅이다. 서강땅은 아기씨가 황금산에서 내려와 삼형제를 낳는 곳이고 삼형제가 자라는 곳이다. 아기씨는 서강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유정승 따님애기도 이곳에서 무당이 된다. 무당이 되는 것은 초월적 존재가 된 삼맹두의 승인을

연고서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공간은 삼천천제석궁이다. 이 공간은 아기씨가 죽어 간 곳이고 유정승 따님애기가 무당이 되기 위해 삼땡두에게 불러갔던 곳이다. 이곳은 하늘로 설정되어 있다. “죽은 아덜 초체 올려 초공 하늘, 이체 올려 이공 하늘, 삼체 올려 삼공 하늘, 옥황에 첫복소릴 올려”서 “어머님 양단 홀목 쥐여잡안 서강베포 땅 느려산다.”⁴⁾ 유정승 따님애기도 “물명지전대로 걸러올리렌”⁵⁾ 하니, 지상에서 더 위에 있는 공간이다.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니 하늘임이 분명하다. 현용준도 삼천천제석궁을 저승이라 하며 하늘과 같은 공간에 설정하였다.⁶⁾ 그러나 이곳은 사실은 죽은 자의 공간이다. 그러나 삼천천제석궁이 하늘에 있다 해도 그것은 옥황 하늘과는 변별되는 곳이다. 옥황하늘과는 구분되는 죽음의 공간, “깊은 궁”이다. 안사인본에는 “지폰 궁”⁷⁾이라고 되어 있다. 이 “깊은 궁”은 저승이므로 지하세계라는 관념이 가능한 곳이다. 우리 무속에서 지하세계 또는 지옥이라는 발상은 존재하지 않기에 저승을 지하세계로 비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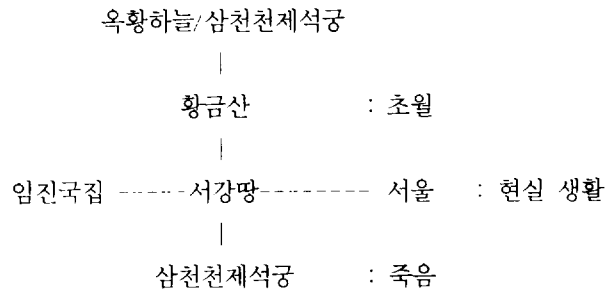
때로는 제주 무속에서 저승은 이승과 수평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아주 먼 곳이다. 강림이는 저승을 가기 위해 아주 먼 길을 간다. 그러나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은 저승강아지를 따라가다가 “헝기못테레 팡당 빠지는 것이, 생사름(生人) 좀자당 꿈보당 깨듯이 강님이 눈을 번뜩 뜨언 보난 이승 질이 되옵테다.”(사전, 262쪽) 로 간단히 처리되어 있다. 결국 무속에서 하계가 땅

4)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43쪽.
5) 같은 책, 147쪽.
6)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60쪽.
7)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169쪽.

아래 있는 곳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고 이승의 끝이나 하늘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초공본풀이의 경우 삼천천제석궁이 황금산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늘이라고 설정되어 있으나 그곳은 삼맹두가 신이 되어 좌정하는 곳이다. 심방을 관장하는 곳이고, 심방이 죽어서도 올라가는 곳이다. 황금산이 이승의 여러 인간 생활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는 것과 달리, “우리랑 저승 삼시왕에 들어서근 양반 원수 갇으쿠다”(문무병, 144쪽)라고 하는 것처럼, 주로 죽음과 관계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높은 곳에서 인간 생활에 간여하는 황금산과 생활공간인 서강 땅, 그리고 죽음의 공간인 삼천천제석궁을 일렬로 놓아볼 수 있다. 현용준은 제주 무속의 공간을 하늘/삼천천제석궁 - 황금산이나 서천꽃밭과 같은 신성계 - 지상계의 삼층으로 제시한 바 있다.⁸⁾ 초공본에도 삼천천제석궁이 하늘과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위쪽에 옥황하늘과 황금산을 두고 중간에 서강땅, 아래에 삼천천제석궁을 놓아보자. 하단의 삼천천제석궁은 죽음의 공간을 상징한다. <초공본풀이>에 나타나는 수평-수직 공간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볼 수 있다.



8)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60쪽.

이 그림을 보면 가로축과 세로축의 대립이 확연히 드러난다. 가로축은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들이다. 남녀간 자식이 없는 임진국 대감 부부가 기차치성을 드려 딸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사회 어느 곳에서도 늘상 일어나는 일을 되풀이한다. 그 상황은 결핍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기에 서사문학에서 발단 부분에 애용된다. 서울은 세속적인 견지에서 성공을 집약하는 공간이다. 서울에서 과거란 입신양명의 대명사이다. 서강땅에서 아기씨가 하는 일은 삼형제를 낳고 힘들여 키우는 것이다. 이 세 공간은 현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을 보여준다. 태어나서 자라고 과거에 합격하여 출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과정이고 목표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것으로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삶의 과정은 낳고 자라고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위의 그림이 보여준다. 왼쪽에 있는 임진국 대감의 집은 가족의 공간이고 오른쪽의 서울은 사회적 공간이다. 임진국 대감은 딸을 낳았고, 삼행두는 과거에 합격하지만 포기한다. 가족을 이루고 사회적 성공을 이룬 것이 궁극적인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수직공간이 일러준다. 수평공간을 가로지르는 것은 수직공간이다. 그 위에 보이는 것은 초월 공간이고 아래 놓이는 것은 죽음의 공간이다. 일상적 삶은 죽음에 의해 파탄에 이른다. 삶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죽음이 이를 막는다. 어떤 성공적인 삶도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할 뿐이다. 또 그저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느낄 때, 일상을 너머선 곳에 있는 무엇인가를 그리워하게 된다. 노가단풍 아기씨도 삼행두도 저 높은 곳 황금산에를 다녀와야 한다. 결국 가로축에 있는 현실 차원의 일상적 삶이 부딪치는 두 상황을 요약하면 죽음과 초월이다.

위의 그림은 <초공본풀이>가 삶의 딜레마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삶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딜레마, 삶은 먹고 사는 현실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는 딜레마. 이 두 가지 딜레마는 인간이기에 겪게 되는 삶의 모순이다. <초공본풀이>는 이 딜레마를 다루는 수많은 신화 또는 종교와 맥을 같이 한다.

Ⅲ. 중심 공간의 기능

신화란 이러한 삶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다.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계상황”⁹⁾에서 인간만의 답을 찾는 적극적 사고행위이다. 그것은 한계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탐색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지상에 묶여 있는 자신을 지상 너머의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결방법을 찾는다. 그네를 뛰며 저 달처럼 멀리까지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네줄에 묶여 있음을 자신의 한계상황으로 확인하고 마는 춘향이는 현대인의 비극적 전망을 보여주지만,¹⁰⁾ 자신이 사실은 그네줄을 벗어나 달처럼 갈 수도 있고 또는 달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신화이다. 만화나 영화로 생각해보자. 춘향이 그네줄을 벗어나 달처럼 먼 곳으로, 저 높은 곳으로, 우주로 날아오르는 장면을 화면으로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할 수 있다. 그것이 영화 E.T.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을 향해 올라갈 때 관객들이 내지르던 환호와 같은 것이다.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9) 엘리야데, 이재실 옮김, 『이미지와 상징』, 까치, 1998, 40쪽.

10) 서정주, 『鞦韆詞』,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나를 밀어 올려다오/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이 올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서(西)으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영화관에서이지만 감혀있던 현실에서 벗어난다. 인간적 한계와 절망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단순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과학의 견지로는 무의미한 놀음일까? 그러나 과학이 발달해도 또는 발달할수록 E.T.와 같은 경험에의 욕구는 강해진다. 그것은 과학과는 다른 차원의 인간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히 좌표상의 위쪽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의미 있는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우리를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엘리아데는 이렇게 말한다.

“이 특성은 이해하기 쉽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라면 모두 총체적 실재, ‘신성’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중심, 스스로의 중심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지향하기 때문이다. 실제의 한 가운데에, 천상계와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인간에게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욕망은 ‘세계의 중심’이 그토록 과도하게 활용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¹¹⁾”

그것은 삶의 딜레마를 초월과 중심을 통해 해결하려는 오래된 욕구이다. 신화는 이 욕구를 반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초공본풀이〉의 방법은 무엇인가? 두 단계로 해명해볼 수 있다.

먼저 노가단풍 아기씨가 초월과 죽음을 경험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아기씨는 초월적 공간인 황금산을 올라간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여러 산과 바다를 힘겹게 넘고 건너야 도달하는 길이다. 한편으로 그 길은 아기씨에게 혼인의 길이다.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렇게 도달한 황금산에서 아기씨는 머물러 살지 않는다. 초월적 공간에 이르렀으나

11) 엘리아데, 같은 책, 62쪽.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공간에서 남편인 주접선성을 만났으나 함께 살지 않는다. 이는 여성에게 혼인이 삶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손 없는 색시> 설화에서 손 없는 색시가 결혼을 했어도 손이 생기지 않다가 집에서 나와서 자기 삶을 갖게 되었을 때 손이 생기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¹²⁾ 아기씨는 서강땅으로 내려와 살게 된다. 초월적인 것과 접촉은 했으나 그것이 그대로 그녀의 삶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아기씨는 자기대로의 삶을 산다. 삼형제를 낳고 어려운 가운데서 힘겹게 자식들을 키운다. 이 과정의 끝에 아기씨는 죽음을 겪는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보았던 아기씨는 이제 저 낮은 곳에 내려가 보았다. 초월은 초월만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다. 죽음을 겪고 나서야 아기씨는 재생의 자격을 얻는다. 물론 이 재생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신이 되어 삶을 마친 인간의 세상을 관장하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는 초월은 초월만을 추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초공본풀이>는 죽음을 초월의 방법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재생은 그저 단순히 삶의 반복인 재생이 아니라 초월을 수용함으로써 충만해진 재생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서강뽕포망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초월과 접한 아기씨는 서강땅으로 내려와 산다. 초월적인 것을 품고 일상의 삶을 산다. 초월적인 것이 일상에 특별히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가난은 지속되고 삼천선비의 꾀박은 가중된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초월의 모습이다. 그 초월로는 부족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초월을 완성한다. 그 두 과정은 모두 고통이다. 황금산에 오르기 위해 그 먼 길을 힘겹게 갔고 인간의 말로는 설명

12) 신연우, 「<손 없는 색시> 설화와 여성 의식의 성장」, 『우리 설화의 의미 찾기』, 민속원, 2008, 32-51쪽.

할 수 없는 차원인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

황금산	:	초월
		---> 초월에 이르는 고통
서강땅		일상
		---> 죽음을 겪는 고통
제석궁		죽음

이런 고통은 왜 필요한가? 그것은 그 길이 중심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중심은 성스러운 곳이다. 초월을 얻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 가야 하는 것은 많은 신화의 공통 화제이다. 엘리아데는 이렇게 말한다.

그 중심에 이르는 길은 “험난한 길”이다. …… 사원에 있는 오르기 힘든 나선형의 계단, 성지 순례, 황금양털, 황금의 사과, 블로초 등을 찾으려고 영웅적인 모험을 감행하는 위험이 가득 찬 항해, 미로에서의 방황, 자아에 이르는 길, 그리고 자기 부재의 중심에 이르는 길을 찾는 탐구자의 고난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난의 정도가 그 실제적인 예들이다. 이 모든 길이 험난하고, 고통이 뒤따르는 그러한 과정인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실제로 그 길은 하나의 통과제의이기 때문이다. 즉 俗으로부터 聖으로, 하 루살이와 같고 환각적인 데서부터 실재와 영원으로,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인간으로부터 신성으로 옮겨지는 통과제의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중심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성별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차원에서 또 하나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등한 것이다.¹³⁾

삼맹두 또한 유사한 과정을 밟는다. 서강땅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13) 엘리아데, 정진홍 역, 『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84년4판, 35쪽.

공부를 마친 이들은 삼천선비의 방해에도 과거를 치른다. 다시 서강 땅으로 돌아오지만 어머니가 죽었으므로 살리기 위해 황금산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삼맹두가 황금산을 찾아가는 것은 가난한 생활과 삼천선비의 핍박을 겪고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외조부댁인 임진국대감집을 거쳐서 황금산에 오르는 긴 여정이다. 이들도 황금산에 도달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왔다. 또한 이들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세속적인 성공을 포기할 뿐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한다. 즉 ‘팔자를 그르친다.’ 이는 보통 사람으로서의 삶에 죽음을 가져오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엘리아데가 말한 “죽음으로부터 삶으로”인가? <초공본풀이>의 문맥은 노가단풍 아기씨나 삼맹두나 모두 인간으로 죽어서 신으로 거듭나는 것이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삶은 위의 그림에서 수평 공간에 놓여 있는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으로 채워진 삶을 얻었다는 뜻이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 “신성으로 옮겨진”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아기씨나 삼맹두보다는 이 서사시를 듣는 수용자에 해당한다. 이는 죽음과 삶과 초월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둘째 차원이다. 제주도의 여러 서사시 중에서도 가장 수위에 놓이는 이 서사시는 수백년간 수천만번 되풀이되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이 노래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되풀이에 되풀이를 더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이 계속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가령 심방이 처음 되었을 때도 이 노래를 하지만 이역례 삼역례를 바칠 때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굿법을 학습한다는 측면도 있으나¹⁴⁾, 큰굿과 같은 의

14) 문봉순, 「심방의 입부의례 연구」, 경상대대학원 석사논문, 2005, 108-111쪽.

식에서 무와 무법의 시원적 창시자들을 대상신으로 모셔들여 행하는 제의¹⁵⁾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초공본풀이는 우리나라에 있어 巫法을 처음 창안하고 무악기와 무구를 처음 만들어 곳을 맨 처음으로 거행한 신들에 관한 본풀이라 할 수 있기에, 이것은 바로 무조신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최초의 상황을 해명해주는 서사시를 되풀이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그 노래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체험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하나의 삶의 모범이 된다는 점이다.

제의의 공간과 서사시의 시작은 그 시간과 공간을 일상의 지속적인 시간에서 벗어나게 한다. 소설책을 펼치기만 해도 우리는 일상과 다른 시간으로 들어간다.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시대로 되돌아간다. 〈초공본풀이〉의 제의공간에서 수용자들은 〈초공본풀이〉가 말해주는 처음의 사건이 있었던 시간으로 전이된다. 그리고 그 처음의 사건은 그 뒤를 사는 사람에게 하나의 모범이 된다. 그 뒤의 사람은 처음 사람이 겪었던 것과 같은 삶을 살 것이 기대되고 요구된다. 〈초공본풀이〉에서 그 것은 어떠한 삶인가?

그것은 우리가 위에서 살았던 것과 같다. 일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한편으로는 죽음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높은 어떤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현실을 넘어서려고 하는 삶의 모순을 누구나 겪는다. 그리고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인간적 상황을 노가단풍 자지멩왕 아기씨는 어떻게 겪어 넘겼던가? 이에 대한 반추가 〈초공본풀이〉의 수용이다.

15)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180쪽.

16) 이수자, 같은 책, 179쪽.

노가단풍 아기씨는 삶의 과정을 겪기 위해 집을 떠난다. 이 경우는 구체적으로 여성적 체험이므로 혼인을 위한 떠남이고 다른 삶을 겪기 위한 모험이다. 그는 많은 노력 끝에 일상이 아닌 초월적인 삶에 다가선다. 그러나 혼인이 완성이 아니라 체험은 여러 여성에게 공감아 되었을 것이다. 소녀에게는 혼인이 완성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여성에게는 혼인은 삶의 과정일 뿐이어야 한다. 혼인이 끝인 이야기는 삶을 반 밖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다. 아기씨는 서강땅에 내려와 산다. 초월적인 경험을 하고도 삶의 고난은 그대로 지속된다. 초월이기에 한 초월은 일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초월을 경험하고 가슴에 품은 삶은 단순한 일상을 살지는 않는다. 가난 속에서 삼형제를 키우는 아기씨는 현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과거에 쉽게 합격하는 탁월함을 가진 것으로 초월의 능력을 나누어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월이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은 혼인이나 양육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이다. 죽음을 통해서 삶이 종결이 아니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완성이다.

그러나 이 서사시를 듣고 있는 수용자들은 아직 죽음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노가단풍 아기씨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수용되는가? 그것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삶을 지속해 내는 생활, 그 과정일 것이다. 그 과정은 초월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슴에 품고 삶의 고통을 견뎌내는 삶이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 삶을 완성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기씨처럼 삶을 잘 견디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다. 이것이 그 아기씨를 모범으로 모방하는 삶이다.

이것을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중심이 된다. 중심은 흔히 사원이나 신전, 성지 등 만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한 곳은 초월적인 하늘과 자기가 속한 땅과 지하세계를 잇는 곳으로 생각되

기에 중심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나 엘리아데가 지적했듯이 중심은 수없이 많을 수 있으며 수없이 만들 수도 있다. 이 서사시 끝에 삼맹두가 굿당을 만든 것도 중심의 창건일 것이고, 당클을 매고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의례를 거행하는 곳이 모두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자기 안에서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중심이 된다. 자기 안에서 초월을 수용하고 고난을 수용하고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땅에 매인 인간을 벗어나 진정한 초월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원이고 신전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전을 찾아가고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몇 년을 소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페르시아에 전한다. 9세기 수피사상의 창시자인 아부 야지드의 이야기라고 한다.

아부 야지드는 지난 일을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을 길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이 물었다. “ 어디 가시는가요?”

“성지 순례를 갑니다.”

“돈은 얼마나 가졌는가요?”

“이백 냥입니다.”

그 사람이 부탁했다. “ 그 돈을 제게 주세요. 저는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주위를 일곱 번 도세요. 그것이 성지순례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다.”¹⁷⁾

세계의 중심은 성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거지가 사원과 동등한 무게를 가진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면 세계의 중심의 진정한 의미

17)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203쪽.

를 알게 되고, 나아가 스스로가 중심이 됨을 알게 된다. 방향 없고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생활의 고난이 어떤 식으로든 성스러움과 관련을 맺고 있을 때, 그 삶은 중심이 된다. 현실 삶이 죽음과 초월과 연결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건 서강배포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을 삶의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가단풍 아기씨와 삼뽕 두가 그렇게 살았기에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수용할 수 있다. 그것을 삶의 모본으로 삼아서 삶의 역경을 견뎌나갈 수 있다. 세월이 흐르고 성스러움에 대한 확신이 열어지고 삶이 낡아갈 때, 초공본풀이의 굿과 노래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시작이 되었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IV. 초월과 중심의 차이

이렇게 보니 중심에 대하여 엘리아데가 규정한 것과 조금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엘리아데는 중심을 세속에서 초월하는 공간으로 규정한다. “사원을 오르는 것은 세계 중심을 향한 법열의 여행과도 같다. 최상단에 도달하면 순례자는 세계와의 단절을 실현하게 된다. 세속 공간을 초월하여 ‘순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중심의 의례’가 바로 이것이다.”¹⁸⁾ 그는 우주산, 우주목 등 천상계와 지상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이라하고, “그러한 존재양상은 각각 세속적 인간 조건의 소멸, 즉 존재론적 차원의 단절을 나타낸다.”(59쪽)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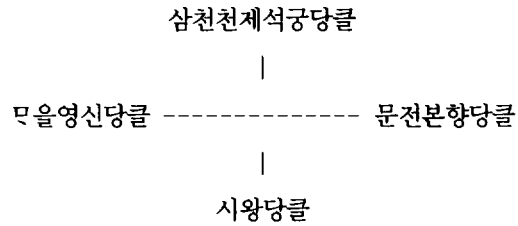
엘리아데의 규정을 수용하더라도 <초공본풀이>의 경우 단절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옳지 않아 보인다. <초공본풀이>의 경우 초월적 공간으

18) 엘리아데, 『이미지와상징』, 앞의 책, 50쪽.

로의 여행은 그 안에 합치하여 세속에서 떠나고자 함이 아니다. 초월을 경험해도 삶의 현실적 과정에는 변함이 없다. 해탈해도 밥 먹고 잠자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초공본풀이>에서의 중심은 초월이 세속적 인간 생활에서의 단절이 아니라, 일상적 생활의 근거가 초월적인 데 있음을 깨닫고 그 삶을 지속하는 측면이 강조된다.

다시 말하면 초월은 세속적 현실 삶에서의 단절이 강조된다. 중심은 연속이 강조된다. 엘리아데는 이 점을 가르치 않고 초월과 중심을 하나로 파악했다. 둘 다 높은 곳을 향한 상승의 의지와 욕망이며 세속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부각했다. <초공본풀이>의 중심은 이와 좀 다른 양상이다. 초월 공간인 황금산의 주점선성은 현실 생활에 여러 양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기씨를 임신하게 하고 산에 광풍이 불어 연다래가 떨어지게 하여 아기씨를 먹이고 아기씨가 황금산을 찾아오는 길을 도와주며 최종적으로 아기씨를 살리는 길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 초월적 존재는 아기씨의 삶의 일부일 뿐이다. 아기씨는 초월을 자신의 일부로 수용하지만 그것은 삶의 고난을 자신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중심을 가지는 것은 초월을 수용하는 자신이다. 자신 안에서 초월은 고난과 함께 중심이 된다. 고난에 방향을 갖게 하는 것은 초월의 역할이다. 삶의 고난이 방향 없이 표류하지 않게, 현실 차원을 넘어선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등대와 같이 고난이 지향해야 할 바를 일러주는 삶은 중심을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초월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현실에서 중심이 되는 초월만 의미가 있다. 그 점을 잘 나타내는 것이 굿당의 4당클일 수 있다. 굿당은 우주의 중심공간이다. 신과 인간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공간이다. 그런데 그 굿당 안에서 또 초월적인 상징물을 둔다. 초월을 중심으로 포섭하는 것이다. 큰 굿에서의 4당클은 이렇게 구성된다.



마을영신당클은 조상신격을 위한 자리이고 문전본향당클은 마을의 신들을 위한 자리이다. 물론 신격이 좌정하는 자리이지만, 마을과 조상은 현실 생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왕당클은 죽음을 관장하는 신격의 자리이다. 삼천천제석궁당클의 신격은 이승과 저승을 모두 관장한다. 삼천천제석궁은 시왕보다 상위의 신이면서 그 아래 세경상을 둔 것으로 상징되는바 현실 생활에 간여한다.¹⁹⁾ 삼천천제석궁은 이승과 저승과 그 너머의 초월적 영역을 모두 관장하는 최고의 신격이라 할 수 있다.²⁰⁾

이 그림은 앞에서 제시한 초공본풀이의 공간구성표와 닮아 있다. 가로축은 가족공간과 사회공간을 보여준다. 세로축은 초월공간과 죽음 공간을 보여준다. 삼천천제석궁은 여기서도 죽음과 재생의 초월적 공간이다. 왜 삼천천제석당클이 그런 초월적 영역까지 담당하는가? 삼천천제석궁이 당풀이 거쳐야 할 죽음과 재생의 공간을 아울러 드러내기 때문

19) 삼천천제석궁이 시왕보다 상위의 신격임은 귀양풀이 때 “어느 입신 위주하여 청허리까. 부정흔 공스 돼와 삼천천제석궁 못 청흠네다.”라고 하면서 시왕 이하 차사를 청해 들이는 사실로 드러난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374쪽.

20) 그런 점에서 제주도 무속을 타력신앙의 관점으로 파악한다면 삼백두가 신화의 중심이고 삼천천제석궁이 중심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 이면에 내재해 있는 종교적 원리는 보다 실존적인 지평과 사상적인 지향성을 갖는다. 중심은, 신의 표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종교인의 내면의 마음의 표상이기도 하다.

이다. 재생까지 담당하므로 초월적인 역량을 가진 공간으로 인정된다.²¹⁾ 그것은 저 앞의 표에서 황금산이 가졌던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굿당에서는 황금산을 따로 두지 않는다. 삼천천제석궁당클이 앞의 표에서 황금산이 가졌던 기능을 함께 드러낸다.

이 공간은 모두 굿당이라는 세계의 중심 공간 안에 배치되어 있다. 세계의 중심 안에 초월과 죽음, 가정과 사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 십자의 교차점에 심방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굿을 하며 스스로들 중심이 된다. 이 중심은 삶의 전면적이고도 포괄적인 수용과, 죽음마저 수용하여 초월을 이루고, 그 초월을 다시 현실로 끌어내려 삶을 영위하는 모습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하기에 이 공간은 세계의 중심 공간이 된다. 굿당 전체가 중심 공간이 되어 초월과 중심이 틀어박힌 차원을 드러낸다. 중심 안에 있는 초월을 설정한다. 중심을 갖지 않은 초월은 현실을 벗어나 허망하게 된다. 초월이 없는 중심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비루한 일상의 연속일 뿐이다. 초월을 안고 있는 중심이어야 세계의 진정한 중심이 된다.

이러한 사고는 한국적 특이성인지 『삼국유사』 설화에도 유사한 장치가 보인다.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는 초월을 추구하는 의상과 원효를 보이고 그 반대편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본능적 애욕에 빠져버리는 조신을 보였다. 두 경우 모두 부처의 진신을 제대로 보는데 부족하였다. 그 사이에 범일이 있다. 범일은 의상과 같은 초월 지향이나 원효와 같은 파탈을 통한 초월 지향도 아니고, 조신과 같이 방향 잃은 삶도 아니다. 부처라는 초월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에

21) 이렇게 되면 삼천천제석궁이 황금산보다 상위에 놓이게 된다. 현용준이 지적한대로 옥황하늘과 삼천천제석궁이 동위에 놓이고 그 아래 황금산이나 서천꽃밭과 같은 신성계를 둔 것은 이런 견지에서이다.

게 부처가 나타난다.²²⁾ 초월만도 아니고 현실만도 아닌 그곳에 삶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세속적인 현실과의 단절이 아니라, 초월도 수용하고 현실도 수용하는 삶이 중심을 가진 삶이라는 것이다.

V. 맺음말

<초공본풀이>는 제주도 큰곳의 여러 본풀이 가운데에서도 으뜸에 놓이는 중요한 서사무가이다. 그러한 <초공본풀이>는 문학적으로도 잘 짜여 있고, 신화적·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문학·신화·종교에 공통적인 중요한 제재 가운데 하나가 초월과 중심이다.

인간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늘 머리 위 하늘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인간은 그 둘을 잇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독교 찬송가의 한 구절처럼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한다. 인간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만큼 동시에 하늘의 높고 큰 어떤 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하늘과 직접 연결되는 초월성을 가진 땅은 곧 인간의 삶이 그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신화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초공본풀이> 또한 모범적인 신화로서 이 문제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었다. 가족 공간과 사회생활의 공간 속에서 현실 삶을 영위하는 가로축의 삶과, 그런 삶 속에서 맞부딪치게 되는 죽음의 사유, 삶과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 소망과 욕구를 세로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22) 신연우, 「삼국유사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의 부처만나기, 『우리 설화의 의미 찾기』, 민속원, 2008. 114-137쪽.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야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야 현실의 삶을 초월하는 전망을 얻을 수 있고, 그 초월에 머물지 않고 다시 현실 삶으로 돌아오는 데에 삶의 깊이가 있다고 초공본풀이는 우리를 깨우쳐준다. 이런 인식은 의식적으로 명료하게 진술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인지되고 각인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거듭거듭 반복되어 구송되고 수용되었을 초공본풀이는 제주도민들에게 현실 삶과 자기 초월의 조화를 얻으려는 인간 보편의 욕구를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태효,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계여행의 양상과 의미」,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37-273쪽.
-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1-383쪽.
- 문봉순, 「심방의 입무의례 연구」, 경상대대학원 석사논문, 2005.1-118쪽.
- 신연우, 「<손 없는 색시> 설화와 여성 의식의 성장」, 『우리 설화의 의미 찾기』, 민속원, 2008. 32-51쪽.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공간구조」, 『탐라문화』 3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5-33쪽.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연구」, 『한국무속학』 제19집, 한국무속학회, 2009. 7-33쪽.
- 신연우, 「삼국유사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의 부처만나기」, 『우리 설화의 의미 찾기』, 민속원, 2008. 114-157쪽.
- 엘리아데, 이재실 옮김, 『이미지와 상징』, 까치, 1998.1-224쪽.
- 엘리아데, 정진홍 역, 『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84년4판. 1-352쪽.
-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1-500쪽.
-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1-539쪽.
-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1-859쪽.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533쪽.

Abstract

Transcendental Space and Core Space
of The <Chogong Bonpury>

Shin, Yeon-Woo*

There are two kinds of spaces in the <Chogong Bonpury>, a traditional shaman epic of Jeju Island. The horizontal axis, the house of Im JinGook, Seogang BepoTang and Seoul are the places where people live their everyday life. Devout prayer for sons and daughters, giving birth and raising, trying 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in Seoul and being a successful person are ordinary course or aim in their lives.

However people do not feel it is enough to lead a everyday life. HwanggeumSan, Seogang BepoTang and Samcheonjeon Jeseokkung make a vertical axis in the <Chogong Bonpury>. Ordinary life would be breakdown by death. Even the most successful life would be meaningless in the face of the death. At the same time we humans long for something full of meaning over the everyday life. So Nogadanpung Agissi and Sammengdoo had to go through up to the high mountain HwanggeumSan.

The dilemma we meet in the ordinary life is the conflicting situation of the death and transcendence. It shows that the <Chogong Bonpury>deal with the dilemma of the life in the face. The fact that we can not escape from death, the fact that we can not live only everyday life. These are the life's dilemma we can not avoid as long as we are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human. The <Chogong Bonpury> goes in company with lots of myths and religions in this line.

How the main characters of the <Chogong Bonpury> solve this dilemma? Nogadanpung Agissi went through a painful travel to HwangguemSan and experienced the death and revival. What made her undergo such sufferings? That is because it is the road to the center or core of the life. The center is a sacred space. Walking the road to death to get transcendence is quite a common topic in the myths all around the world.

Those who understand this in their inner self will become the core itself. Through suffering, death, and transcendence in their inner self, they will become the walking temple themselves.

As a well organized myth, I think the <Chogong Bonpury> suggest a good model of life for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ritual Jeju Gut.

Key Words

<Chogong Bonpury>, Transcendental Space, Core Space, suffering, model of life.

교신 : 신연우 서울산업대학교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아파트 611-2001.

(E-mail : yeon@snut.ac.kr 전화 : 02-970-6294 /010-2722-2959)

논문투고일 2009. 11. 20.

심사완료일 2010. 02. 14.

게재확정일 2010. 02. 17.